

Together

함께 했을 때 더 빛나는 이름 'KNF'입니다

# 원자력 기 여료 기

2022  
SEPTEMBER + OCTOBER  
VOL.163

KNF MAGAZINE



# CONTENTS



## COVER STORY

우리는 함께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 간의 존중과 화합할 수 있는 문화의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작은 변화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또 같이 변화에 동참해 주세요.

## KNF MAGAZINE

# 원자력 연료

2022 09+10 Vol.163

### 발행일

2022년 10월 18일

###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 발행인

최익수

### 편집실

홍보협력실 042-868-1135

### 기획·디자인·인쇄

반디컴 02-2272-1190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4



06

## CORE OF ENERGY

### 04 KNF 소식

- 2022년도 방사능방재 전체 훈련 실시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장터 'Ready, 가치플렉스' 참여

### 06 Theme & Talk

차세대 리더들이 말하는 존중과 화합으로 함께 성장하는 KNF

### 10 Theme & People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다  
- 히즈빈스 이민복 공동대표

### 14 Theme & Essay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기업문화

### 16 Theme & Test

조화로운 기업 문화를 위한 미덕 '리더십' 스스로 체크해 보는 나의 리더십 유형



## CORE OF KNF

- 18 **My Item**  
업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휴식하며 보기 좋은 블로그
- 20 **함께의 가치**  
같이 또 함께 만들어가는 청림의 가치  
'함께그린 청림 Hi:story' 그 현장을 찾아서
- 24 **안전 알림이**  
소방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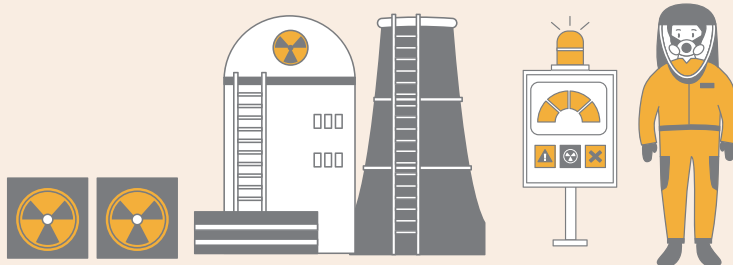
## CORE OF LIFE

- 28 **여행의 이유**  
단풍 소복소복 핀,  
숲 고운 괴산 여행
- 32 **과학컬럼**  
신편러와 그의 유대인들
- 34 **문화 레시피**  
글로벌 OTT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영우가 보여준 '콘텐츠 파워'
- 36 **리빙 트렌드**  
취향도 공유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태그니티'
- 38 **KNF in Cartoon**  
Together,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어주세요
- 40 **KNF NEWS**
- 44 **독자 어울터**

## 2022년도 방사능방재 전체 훈련 실시



우리 회사는 9월 22일 원자력 시설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시 방재요원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방사능방재 전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본사 핵연료 제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사고 발생 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요원의 소집, 방사선 비상 발령부터 사고시설 점검 및 복구대책 수립, 사고시설 안팎의 방사선/능 측정과 제염, 방사선 환경조사와 영향평가까지 전 과정이 포함됐다. 방사능방재 훈련이란 원자력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주민보호 및 사고수습을 점검하기 위한 훈련으로,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 비상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요원의 사고수습, 주민 소개 및 대피, 화재진압, 의료구호, 원자력시설 내외 방사선 감시 등에 대한 훈련이다.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장터 'Ready, 가치플렉스' 참여



우리 회사는 9월 24일과 25일 엑스포 한빛탑 물빛광장서 양일간 운영하는 대전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과 대전시민 대상 착한소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판매전인 '2022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Ready, 가치플렉스'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우리 회사를 비롯해 대전지역 사회공헌 협업 브랜드인 '퍼블리코 대전'의 공공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과 대전관광공사, 사회적경제연구원 이 뜻을 모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장터에는 대전지역 사회적경제기업 4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수공예품, 생필품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판매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번 'Ready, 가치플렉스' 행사를 통해 대전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온라인 시장을 통한 판로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차세대 리더들이 말하는 존중과 화합으로 함께 성장하는 KNF



## 함께 가기 위해선 다름을 먼저 인정해야죠

기업은 수많은 다양성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어떤 이는 배려를 먼저 손에 꼽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선도적인 리더의 역할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유명 기업인은 한 매체를 통해 ‘함께 멀리’를 ‘상생과 공존’의 키워드로 제시하며, 기업의 운영 철학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의 주제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학으로, 주제를 ‘함께 & 같이’로 정해 토론을 시작했다. 먼저 의견을 제시한 황해수 부장은 “개개인의 다양성과 ‘같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혼자보다는 조화를 바탕으로 조직이 운영되었을 때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황해수 부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한 박기범 부장은 “함께라는 키워드가 가진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협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오른다. 이는 시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개개인의 역량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진중한 이야기를 전달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유도해낸다.

신중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황호연 부장은 “주위를 먼저 둘러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점차 우리 조직도 젊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조직이 젊어진다는 건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신구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란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 젊은 부자들 중 막내 격인 박민영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황호연 부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런 그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겠다.”며 “존중과 배려야말로 조직이 함께 오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여기에 한 가지 의견을 더한다면 다름을 인정



- 1 TSA기공부 박기범 부장
- 2 TSA성형부 황호연 부장
- 3 NSA운영팀 황해수 부장
- 4 TSA운영팀 박민영 부장



**TSA성형부 황호연 부장**  
 조직이 젊어진다는 건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신구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SA기공부 박기범 부장**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공정별 직무순환  
 체계구축, 정기적인 간식데이, 추가 인재 발굴,  
 부서 메모장, 개인 면담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자신의 생각에 확신하는 모습이다.

#### 화합과 하모니를 통한 조직문화의 개선도 필요

젊은 부장들은 우리 회사의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에 약속이라도 한 듯 9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매겼다. 이 같은 결과에 박기범 부장은 "앞서 황호연 부장이 얘기했듯 존중은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기에 조직의 운영에 있어 유효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단편적이지만 우리 부서의 경우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준 이유를 설명한다.

한편 "박기범 부장의 의견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얘기해보고 싶다."는 황해수 부장은 "청렴윤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심부터 갑질 예방을 위한 회사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들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에 장족의 발전을 이뤄낸 게 맞다. 그래서 90점을 줬다."며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대화처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함께 일하는 동료고, 기업 경영에서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중인 것도 현실이다. 수평·수직 간의 무례함을 절대 사소한 감정 문제, 개인 문제로 보지 않는 추세다. 구성원의 성과, 창의성,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합과 하모니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 조직과 팀의 화합을 위한 개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

앞서 대화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로 화합과 조화를 강조한다고 해도 개개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자 입장이 된 젊은 부장들은 고민이 많다.

"조직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과거와 비교해 30대 중반 이하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들의 경우 개성이 강하고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표출합니다. 제 선배들과는 생각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고요.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게 '공정별 직무순환 체

NSA운영팀 황해수 부장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구성원 간의 조화까지 하나의 하모니처럼  
어우러졌을 때 가장 공평하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SA운영팀 박민영 부장  
우리가 함께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유연함이라고 생각하며,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계 구축, '정기적인 간식데이', '추가 인재 발굴', '부서 메모장', '개인 면담'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 부장은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꽤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편 조직의 화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유연함'이라고 말하는 박민영 부장은, 대화에 참여한 부장들 중 유일한 30대로 조직 내 간극을 메워줄 매개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이처럼 여러 대화가 오가면서 이들이 의견을 모은 접점이 있었는데, 기존의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탈피해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발 빠르게 옮겨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서로의 의견에 공감한다.

#### 각자의 소통전략으로 구성원들 간격 좁혀나갈 것

조직은 리더의 역량에 따라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의 생각은 어떨까? 먼저 박민영 부장은 이 질문에 "좋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 긍정적 마인드,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좋은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고, 황해수 부장은 후배들

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잠시 고민에 빠진 듯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황호연 부장은 자신의 멘토인 사내 선배에 관해 얘기하면서 그 선배님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동료들의 삶을 존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두의 발언을 경청한 뒤 뒤늦게 입을 댄 황해수 부장. 그는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들과의 관계 유지까지 보다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자상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해가겠다는 바람과 함께, 팀의 건강한 터닝포인트에 길잡이가 되겠다며 대화를 마무리 했다.

이번에 만난 4인의 젊은 부장들은 미래 KNF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로서 여전히 성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과 대화를 통해 우리 회사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비전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걸어갈 길에 언제나 희망이라는 동반자가 함께 하길 기원해본다.



Together

#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다

## 히즈빈스 이민복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취향기내는사람들'의 커피 브랜드 '히즈빈스'의 수장 이민복 공동대표(45)를 만났다. 온화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그의 언행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밴 듯 따뜻함마저 느껴진다. 히즈빈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의 장이자 장애인들의 가능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꿈터로 이민복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가진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세상이 가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뒤

히즈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His'와 커피콩을 의미하는 'Been'의 합성어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커피향기'가 널리 전파되길 희망하며 만든 네이밍이자, 히즈빈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히즈빈스와 이민복 대표가 인연을 맺게 된 시점은 지난해 1월로, 히즈빈스 이사직으로 입사한 그는 6개월 뒤인 7월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이민복 대표는 히즈빈스 이전에 글로벌 제안 전문 컨설팅기업에서 10여 년간 일하며 대표직까지 맡았던 굵직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런 그가 사회적기업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인생의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제도 밖 사람들이 처해있던 불편한 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다.

“대입시험을 위해 서울에 와서 제 인생 처음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사람과 또 그들을 무시하 지나치는 행인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씁쓸한 단편을 보게 됐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돕겠다고요.”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시절 스스로 다짐했던 자신의 결심과 각오를 실천에 옮겼다.

### 향기내는사람들 임정택 대표와의 필연적 인연

지금은 꽤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민복 대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사회적기업은 그 개념조차 생소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비정부기구(NGO)였고, 창립 멤버로 입사했던 컨설팅기업에 들



어간 후에도 그 꿈을 놓지 않았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에게 그런 자신의 꿈을 스스럼없이 밝혔고, 관련 서적을 찾아 지식을 습득하는가 하면 강의를 듣기 위해 발품 팔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팀을 만들어 운영하기에 이른다.

이후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20여 명의 대표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현장에서 향기내는사람들 대표 임정택 씨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다.

“임 대표님은 2008년 향기내는사람들을 창업하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히즈빈스 운영을 시작하는 등 장애인 고용문제에



“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마주할 기회가 없으니 장애인에 관한 인식도 막연해지죠. 히즈빈스는 커피를 매개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분입니다. 돌아보면 그의 열정이 저를 움직인 것 같고, 그와 함께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임정택 대표가 이민복 대표에게 히즈빈스의 컨설팅을 의뢰했고 사업적 파트너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던 중 임정택 대표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불가피하게 휴식기를 가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민복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 무한경쟁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 만들어낼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고됨의 연속이다. 특히 일반 기업들과도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과 마주한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상 NGO의 심장을 갖고 달려야 하지만, 일반 기업들과 같은 치열함 또한 스스로가 갖춰야 할 덕

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민복 대표 스스로가 보다 빠르고 멀리 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됐다. 현재 히즈빈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지점까지 합쳐 2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직원이다. 따라서 매장을 찾는 이들이 직원들에게 차별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커피의 품질 유지는 물론 장애인이기 이전에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히즈빈스만의 고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히즈빈스가 2018년 특허 출원한 장애인 고용 위탁 관리 시스템인 ‘다각적 지지 시스템’ 얘기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사원 1명당 7명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제도로, 일반 회사에 채용된 장애인의 존속기간이 유독 짧다는 현실에서 착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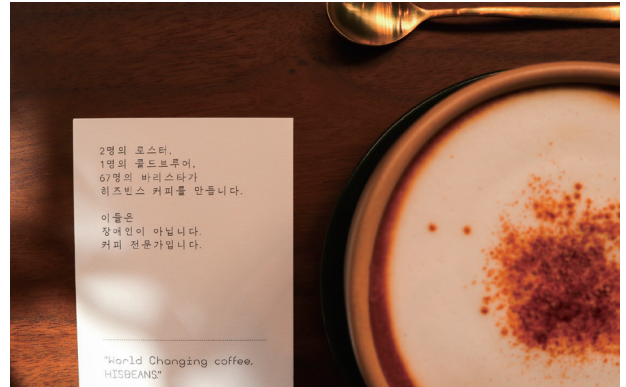
“인사담당자의 업무가 장애인 채용에서 그치고 관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직업 유지 기간이 짧을 경우 장애인은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함께라면 희망은 있다

“한 매장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매장을 찾은 손님 한 분이 예전 자신에게 커피를 내려준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 한 분을 꼭 찾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전에 자신의 커피를 내려준 바리스타 선생님이 내려준 커피가 제일 맛있었다.’며 이유를 설명하시더군요.”

이를 계기로 주문을 받고 손님에게 커피를 내준 바리스타 선생님은 그날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한다며 주변에 자주 말하곤 했다고. 그 후 그는 자존감이 회복되고 복용하던 약의 양을 줄이는 등 정신적 장애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8~9년을 히즈빈스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민복 대표는 이 사연처럼 히즈빈스가 단순히 커피를 팔고 사는 공간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 더불어 히즈빈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삶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즈빈스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 결혼, 이직 등 일하기 전까지 계획하지 못했던 미래를 그려가는 장애인 사원을 보면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 역시 깨달았거든요.” 히즈빈스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민복 대표. 그가 깨달은 ‘함께의 가치’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 • mini interview •

**Q 사회적기업으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가 의아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묵묵히 지켜봐 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Q 히즈빈스를 새내 카페로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히즈빈스를 새내 카페로 운영하면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 카페 매출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원은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되고요. 현재 히즈빈스 매장 중 절반이 고용의무제를 해결하는 가맹점입니다. 애러미, 와디즈, 롯데건설, 포항세명기독병원, 안양샘병원, 부천예순병원 등이 히즈빈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도 지점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필리핀 퀘존점입니다. 이곳은 향기내는사람들과 밀알복지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합작한 히즈빈스의 첫 해외 지점으로 원래 개업 시기가 2020년 3월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올해 7월 30일 정식 오픈했습니다. 최근 들어 안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Q 히즈빈스의 운영철학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비전이 있는 일자리 창출을 꿈꿀 수 있겠네요. 다음은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함께 어떤 분야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기업문화

최근 기업 인사책임자들이 요구하는 인재 트렌드를 보면, 학점이나 자격증보다는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조직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Z세대를 기준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수평적 조직문화와 높은 연봉이 좋은 모범 기업의 형태로 꼽혔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독재문화 및 밤샘문화가 최악의 기업문화로 꼽혀 우리에게 또 다른 화두를 안겨주고 있다.



## 스토리로 표현된 정체성

### 기업 스스로 변화에 적응해야

수년 전부터 모든 공공부문의 입사 시험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시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직업기초능력'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및 직업윤리 등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공공 부문 입사 시험 시즌이 되면 전국의 학원에서는 직업기초능력 특강이 붐을 이루고 있다.

기업 측에서 생각하는 인성이 직업기초능력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인성도 시험 대비 특강'으로 일정 수준 높일 수 있다는 착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인성이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놓은 'life-logging' 데이터』가 나의 스토리로 표현된 정체성이란 생각이다. 옳든 그르든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온 자기 정체성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채용에 있어서 기존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은 이미 형성된 산업화 시대의 가치들이 작용하면서 그 기준의 틀 안에서 근로자를 소유하려는 습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시급한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다.

### 기업문화 혁신이 일터 혁신으로 이어질 것

기업이 진정으로 훌륭한 인재를 원한다면 인재 채용에 대한 인식을 사용자 중심에서 구직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직 청년층이 품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융화하고 발전시키며 기업의 생산성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업문화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작업장 혹은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터 혁신(workplace innovation)'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터 혁신은 기술과 인간노동의 조화, 그리고 첨단기술과 고속련의 결합을 부단히 추구하는 것으로, 작업장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 및 조직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고성능과 작업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터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뿐만 아니라 각종 고용노동정책의 미시적 실천토대라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일터 혁신은 노사관계와 고용을 매개하는 핵심 변수로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일터 혁신이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성이라

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더욱 중요하다.

###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문화로 성장 스토리 만들어야

그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문화개선, 임금체계 개선, 평생학습, 노사파트너십 체계구축 등 9개 영역에서 광범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오랜 노력으로 생산성 혁신과 품질향상 그리고 근로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들 영역 중 '고용문화개선'은 기업의 비전,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DNA이며 회사

의 존재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고유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으로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주는 원자들로 조합된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만들어진 것'이란 경구가 있다. 기업문화 역시 기업의 성장 스토리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기업은 최고 경영자부터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랑할 만한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게 나의 소신이며, 일터의 혁신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문화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 ‘함께’ 나누는 이야기

# 조화로운 기업 문화를 위한 미덕 '리더십' 스스로 체크해 보는 나의 리더십 유형

조직을 이끌어가는 구성원을 우리는 지도자(指導者) 또는 리더(Leader)라고 부른다.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최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인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행동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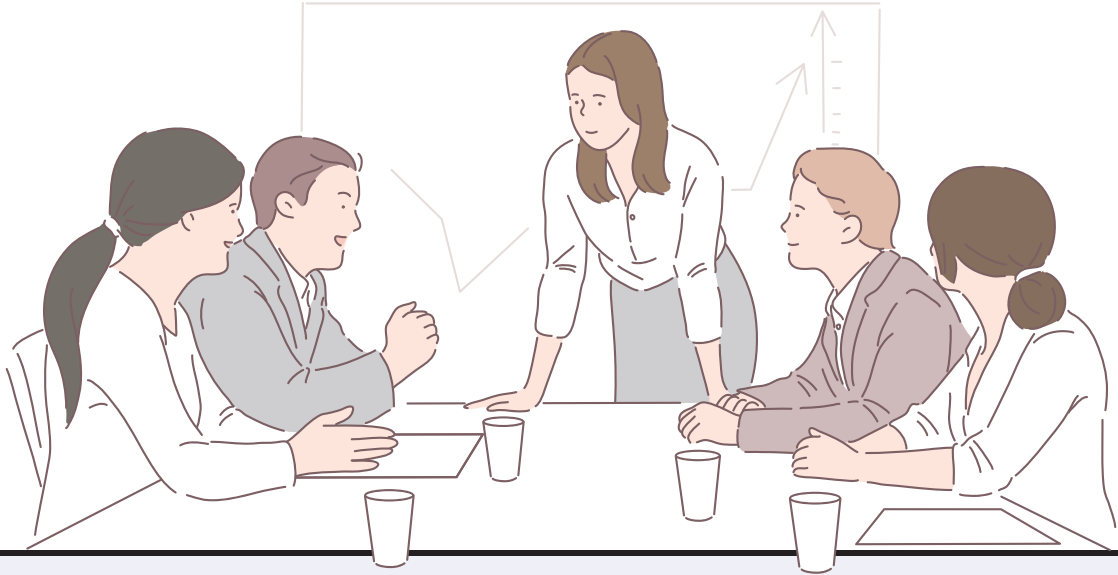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포지션을 고려해 체크 리스트로 스스로를 평가해보세요.

10점 만점 중 7점 이상 이라면  
당신은 성공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 스스로 점검해보는 리더십 체크 리스트

- 나의 업무에서 스스로 또는 타인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 나의 성장을 위해 모르는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길 주저 않는다.
- 기본적인 업무에서 나아가 사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임팩트를 고려해 일하며, 사업의 목표, 팀의 목표,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고 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 타인과 일할 때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 공동의 성과와 목표를 위해 구성원의 시간을 고려한다.
- 동료 또는 구성원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1명 이상의 동료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 준다.
- 업무에 임하기 전 왜(why) 이 일을 하고 무슨 일(what)을 해야 하는지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 풀리지 않는 업무의 해결을 위해 문제점을 먼저 찾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 구성원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나누고 맡긴다.



## 방향성을 제시하는

### 추진형 리더십

- 이 스타일의 리더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거나 몸소 보여준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최선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목표와 일정,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경향이 많다. 이밖에도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고 주도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고,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추진력까지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함께의 가치를 아는 소통 중심

### 참여형 리더십

-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형 스타일은, 구성원들이 목표와 실행 계획대로 행동하길 원하고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들 스스로가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될 때는 파트너를 참여시키거나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업무의 진척과 향상이 있을 땐 당근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직원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고려하도록 돕기도 한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잦은 피드백은 물론 구성원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에도 아낌이 없으며 정보를 체계화해 공유하기도 한다.

## 자율과 존중의 가치를 우선하는

### 지원형 리더십

- 지원형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로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권하고, 목표 설정이나 실행 계획을 짜도록 도모한다. 아울러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드하기도 하는데, 도전의식을 독려하거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타인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지시하기 이전에 경청하는 것을 즐기며,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언제든 제공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 무한한 응원과 지지

### 감성형 리더십

- 말 그대로 감성적인 면이 강점인 리더십 스타일이다. 실행 계획이나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 구성원들이 주도하도록 함은 물론,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거나 의욕의 고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평상시 구성원들의 말과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고충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상의하고 논의하기를 즐긴다. 또 시장의 상황과 소통하기를 권장하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다. 전문지식을 공유하길 즐기는 것은 물론 구성원이 도움을 원할 때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다. 한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흥미롭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을 경우 자진해 제거하기도 한다.

# 업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휴식하며 보기 좋은 블로그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업무가 꼬이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보면 좋은 블로그 몇 개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물론 꼭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만 보기에는 아까운 블로그들이므로 언제든지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찾아가 리프레시(refresh)해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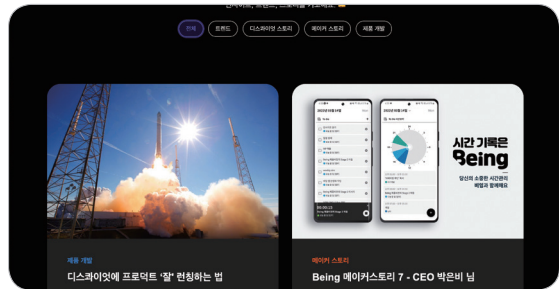


## 스타트업 및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GeekNews

<https://news.hada.io/new> ☆

본 블로그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술개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부분에서도 개발자다운 면모를 감지할 수 있는데, 심플함을 넘어 단순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정보력에서만큼은 꽤 쓸만한 아티클(Article)들을 담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길 권한다. GeekNews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아티클이 많다는 점이다.

개발 뉴스, 기술 관련 소식, 스타트업 정보 및 노하우, 세상의 재미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스 사이트.



## IT 서비스 메이커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디스콰이엇 매거진

<https://www.disquiet.tech/blog> ☆

블로그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면 “IT 서비스 메이커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메이커들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이트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며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설명한다. 본 블로그에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토리 섹션이 인기다.

메이커들을 위한 공간으로 메이커들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개발 인사이트, 트렌드, 스토리를 기고한다.



## 국내외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가 보고 싶다면 그로우엔베터

<https://www.grownbetter.com/article> ☆

국내에서 CX(Customer Experience) 개념을 대중화시킨 천 세희 대표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 사례 및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관련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와 콘텐츠를 번역해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도 접근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

서비스를 꽤나 키워본 이들에게 직접 배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무



##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pap

<https://playinpap.github.io/> ☆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를 다루는 사이트다. 인과 추론, 그로스 와 같은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해준다. 일반적인 난이도부터 어려운 글까지 다양해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하다.

많은 데이터 직군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책임도 매일 변화하고 있기에, 그 과정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의지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상에서 독특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매거진 입맛

<https://dewberry9.github.io/> ☆

본 블로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당히 독특하다. 프로덕트 인사이드부터 책과 술, 그리고 소설 리뷰까지 한데 버무려진 맛집 같은 블로그이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 법한 콘텐츠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블로그로 잠시 쉬거나 나만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다.

디자이너 이준환의 읽을 만한 취향들프로덕트 디자인 / 입맛 리뷰



## 일상에서 독특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부아c의 따뜻한 투자 이야기

<https://blog.naver.com/alex267> ☆

미국 주식과 투자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는 블로그로 자신의 생각, 부자 생각, 직장 생활 카테고리 등을 주로 다루는 블로그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고할 만한 글들로 가득하다. 또한 블로거 스스로가 경험한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한 실전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더욱 공감이 가는 블로그다.

미국에서 15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휴직 후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며, '부의 통찰'의 저자이기도 하다.

## 같이 또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의 가치 '함께그린 청렴 Hi:story' 그 현장을 찾아서

완연한 가을에 들어선 지난 9월 15일, 본사에서 열린 '함께그린 청렴 Hi:story' 현장을 찾았다.

시릴 만큼 청명했던 하늘과 어우러진 KNF인들의 얼굴은 웃음꽃으로 가득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시 한번 청렴을 각오하는 모습에서는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 함께 또 같이 실천하는 청림 문화

‘함께그린 청림 Hi:story’는 ‘히스토리(HISTORY)’와 ‘하이, 스토리 (Hi, Story)’의 합성어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회사의 역사를 함께 그려온 임직원 모두가 청림스토리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본사 한마음관 일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이벤트 존을 마련해 흥미를 더함으로써 KNF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

### 다양한 이벤트로 청림 의미 더해

이번 행사는 청렴미션존, FunFun존, 전시회, 커피트럭 등 크게 4개의 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청렴미션존에서는 ‘YES 7, NO 7(바람직한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기준 7가지씩)’ 선정을 위한 청렴투표 및 퀴즈를 진행해 임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FunFun존에서는 룰렛과 달고나 등 체험이 가능토록 준비해 청렴이 가진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한마음관 야외 1층에는 커피트럭을 마련해 점심시간 중 기분 좋은 가을 햇살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던 KNF인들이 긴 줄을 만들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실내 전시회에는 청렴과 관련한 영상과 다양한 홍보물들로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셀프 사진관 부스를 설치해 오가던 직원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등 ‘함께그린 청림 Hi:story’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다.





“  
 ‘함께그린 청렴 Hi:story’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또 같이  
 청렴 문화 확산의 주체가 되고자 마련되었다.  
 ”

**재즈공연과 강연으로 청렴에 대한 공감 이끌어**

‘함께그린 청렴 Hi:story’ 행사 후반부는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최익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를 더욱 내재화하여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보컬 김영미 씨가 이끄는 재즈팀의 감미로운 선율로 늘 긴장 속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임직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으며, 역사 속 청렴 인물을 주제로 한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의 청렴토크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 중심의 청렴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KNF 윤리·인권 주간 운영, 노사합동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서약식을 갖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잠깐!**  
**interview**



**임진영** 사우(국내원전설계관리팀)

청렴은 우리 회사는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행사가 매우 뜻깊고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최지선** 사우(연구기획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으로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청렴은 중요한 매우 요소임을 잊어서도 안 되겠고요.



**정용숙** 사우(노심설계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까지 마련되어 흥미롭게 즐겼고, 이번 기회를 통해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체계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1. 소방계획 & 화재방호운영계획 수립·시행

우리 회사에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계획서와 화재방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우리 회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예방 :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 및 정비, 가연물·점화원 관리 등
-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소방교육 및 훈련, 피난계획 등

## 2. 소방시설 점검, 정비 및 개선

우리 회사 곳곳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으로 구성되며 화재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하나만으로도 1천여 개에 이르고 모든 소방시설을 종합하면 6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규모로 구성되지만, 단 하나의 설비만 고장 나도 화재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월간점검 : 소방시설의 외관 이상유무 확인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 및 설치상태의 적법성 확인

구분	점검의 종류	점검주기	점검자
법정점검	월간점검	월 1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 전문업체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자체점검	절차서에 따른 주기적 점검	주간 / 월간 / 분기 / 반기	



수계 소화설비 점검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화재 감지설비 점검

우리 회사는 단순히 국내 소방법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기술동향 조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진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소방시설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사업을 꼽을 수 있다.

우리 회사의 전기실, 전산실 등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끄기 어려운 지역에는 가스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소화 후 잔존물을 남기지 않아 이물질에 민감한 장비를 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설비처럼 보이지만 차질 잘못하면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사고가 사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락카-디락카 공정 등 가스계 소화설비가 운영 중인 전 지역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건전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개년도에 걸친 종합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사업 완수를 목표로 지금도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영광스럽게도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 수검 시 이러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가스계 소화설비 운영부서와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화설비 오작동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 사업 일정표

구분	사업지역
1단계(2019년도)	핵연료2동 화학분석실, 방사선계측실 및 실험장비용 기전실
2단계(2020년도)	핵연료1동 락카-디락카 공정
3단계(2021년도)	본관 통합정보기계실 및 한마음관 기술정보실
4단계(2022년도)	핵연료1동 전산기계실, 품질정보실 및 부품동 향온향습실
5단계(2023년도)	유틸리티동 주변전실 / 발전기실 / 축전지실

### » 사업 수행 사진



① CO2 설비 철거 전



② CO2 설비 철거 후



③ 신규설비(Novac-1230)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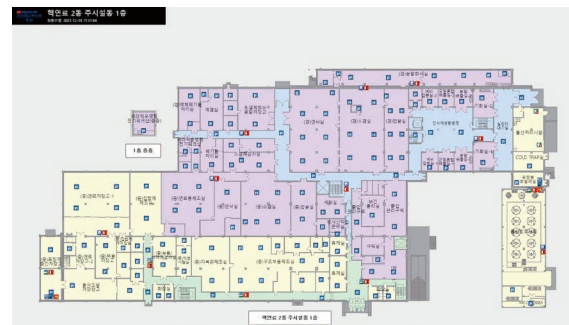
④ 소화약제 저장실 조성

### 3. 화재사고 발생 시 조치

우리 회사 종합상황실에서는 회사 전 지역에서의 화재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발신기의 화재경보 비상벨을 수동으로 조작하면 화재경보가 발생한다. 화재경보가 발생하면 실제 화재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물의 근무자 전원은 옥외로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경보 발생 즉시 초동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화재가 아닌 용접연기 등에 따른 비화재 경보 시에는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원인을 파악한다. 실제 화재 시에는 초기진압을 시도하고 초기진압 실패 시에는 화재 규모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를 운영한다.



비상대책실 (핵연료1동)



종합상황실 (핵연료2동)



# 단풍 소복소복 핀, 숲 고운 괴산 여행

나무들이 물들었다. 가을이 피었다. 나무가 살기 좋아 사람까지 살기 좋다는 곳 괴산. 그곳은 지금 노랗거나 빨갛게 물든 나무들로 환하다. 단풍 피고 저 건기 참 좋은 날, 따뜻한 색감의 단풍에 푹 둘러싸여 지낼 수 있는 괴산으로 숲 여행을 떠나 보자.



## 여기, 물가에서 서성대는 가을

괴산은 산이 많은 곳이다. 이 산들이 물을 뿜어 단풍이 고운 것이라고들 한다. 의역하면 단풍 고운 물가가 많다는 뜻쯤 될 테다. 실제로 그렇다. 괴산엔 저수지 변을 가을 내 환하게 밝히는 은행나무 가로수 길이 있고, 가을이 사는 산 속 호수가 있다. 전자는 문광저수지 은행나무 길을, 후자는 '산막이옛길'을 말한다. 문광저수지는 양곡저수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다소 평범한

이름이지만 저수지 한쪽을 셋노란 띠로 만들어 지나는 은행나무 길(300여m)의 풍치가 뛰어난 곳이다. 바람이 제법 세찬 날이면 곱게 익은 은행잎이 비처럼 떨어져 황홀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여기에 저수지 풍경까지 곁으니 금상첨화다. 새벽이면 청송 주산지처럼 물에 잠겨 자라는 버드나무 주위로 짙은 물안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몇 년 전부터 유명해져 호젓한 산책을 원한다면 새벽 무렵에 찾을 일이다.



산자락에 폭 안겨 있는 괴산호

가을이 깊어가는 산막이옛길은 걷기 좋다. 산막이옛길은 괴산군 칠성면 사오랑마을과 산막이마을을 오갔던 옛길을 다듬어 '걷기 좋게' 만든 10여 리(편도 90여 분) 길이다. 그런데 길을 기준으로 한쪽은 산이고 다른 한쪽은 호수(괴산호)다. 그 아찔한 길에 나무덱을 놓고 군데군데 전망대를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으며 호수와 산을 누릴 수 있게 했다. 호수는 배를 타고도 즐길 수 있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걸으며 즐길 수도 있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산막이마을로 갈 때 걷고, 사오랑마을로 되돌아 올 때 배를 탄다. 호수에서 보는 산자락엔 가을이 짙고, 배에서 보는 호수엔 산자락이 통째로 잡혀 있다.

#### Travel Info

- 문광저수지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16
- 산막이옛길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549-4



1

- ① 공림사의 '천 년 느티나무'
- ② 논과 마을 사이에 있어 더 정겨운 전법마을 느티나무 숲
- ③ 화양구곡 최고의 절경으로 꼽히는 금사담과 암서재
- ④ 쌍곡구곡의 백미로 불리는 쌍곡폭포



2

###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다

느티나무는 사람들을 발밑으로 모은다. 그만큼 넓고 깊은 그늘을 가진 나무다. 괴산엔 느티나무가 유난히 많다. 괴산(槐山)의 '괴'자가 '느티나무 괴(槐)자일 정도다. 가을은 이런 괴산의 느티나무들이 노랗게 물드는 계절이다. 단번에 흑 끼쳐들지 않는 은은하고 소박한 노랑으로 시나브로 물들어 마음에 오래 남는다. 그 은근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곳이 전법마을과 공림사에 있는 느티나무 숲이다.

전법마을의 느티나무 숲은 마을과 논 사이에 있다. 수백 년 된 느티나무 30여 그루가 빼곡해 이맘때면 숲 전체가 온전한 가을 속에 푹 잠긴다. 가끔 그 숲으로는 깨 터는 소리며 콩 타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 개 짖는 소리도 들린다. 예기치 않은 소리의 침입에도 신경이 곤두서지 않는 건 모두 순한 것들이어서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오래 앉아 까무룩 잠들거나 노란 그늘 내리는 벤치에

앉아 시집 한 권 가볍게 읽다 오기 좋다.

공림사의 느티나무 그늘도 전법마을만큼이나 깊다. 그보다 넓지 않은 대신 더 무성하다. 마치 담장처럼 20여 그루의 거목이 절을 푹 감싸고 있어 신비로운 느낌마저 든다. 느티나무는 경내에도 있다. 그 중 중무소 옆에 있는 느티나무 거목의 그늘이 특히 좋다. 수령 1000년을 훌쩍 넘긴 이 나무는 촛농이 흘러내린 것 같은 형상의 밑동 크기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마침 그늘 아래엔 누구라도 앉아 쉬었다 가라는 듯 큰 바위 하나가 있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불고 햇살이 스며들어 그저 좋다. 눈에 닿는 풍경도 순해 눈과 마음이 편히 쉰다.

### Travel Info

- 전법마을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759-4
- 공림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공림길 104

## 가을 계곡에서 듣는 옛 이야기

우리나라 어디든 빼어난 계곡엔 오래된 이야기들이 깃들여 있다. 대부분 구곡이란 이름이 붙은 곳들이다. 괴산에도 구곡이 있다. 아니, 화양구곡부터 선유구곡, 쌍곡구곡, 연화구곡, 같은 구곡 등으로 많다. 이 중 가을엔 화양구곡과 쌍곡구곡의 풍치가 수려하다.

화양구곡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 너른 반석과 기암괴석이 어울린 4km가량의 계곡이다. 조선 중기 좌의정을 지낸 송시열이 성리학을 공부하며 거닐던 곳으로, 화양천 입구부터 계곡을 따라 운영담·읍궁암·금사담·침성대·파천 등 9개의 절경이 이어진다. 첫손에 꼽히는 절경은 단연 4곡인 금사담이다. 맑은 물 속에 보이는 모래가 금가루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금사담엔 송시열이 책을 읽고 시를 읊었다는 암서재가 서 있다. 누가 봐도 탄성이 절로 일만 한 풍치다.

화양구곡의 또 다른 매력은 길에 있다. 치마주름처럼 들락날락 휘어지는 물길을 따라 걷는 길인 데다, 길이 넓고 평탄해 깊은 가을을 호흡하며 걷기 좋다. 들숨 한 번에 가을이 후루룩 들고, 날숨 한 번에 스트레스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군자산과 보개산 사이를 흐르는 쌍곡구곡 또한 퇴계 이황과 송강 정철의 이야기가 깃든 곳이다. 12km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호룡소·소금강·떡바위·문수암·쌍벽·용소·쌍곡폭포 같은 기암과 소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저마다 물과 단풍이 세트처럼 어우러진다. 주차장이 있는 쌍곡휴게소에서 쌍곡폭포까지는 도보로 20여 분 거리. 10m 높이의 와폭 아래 소가 깊고 푸르고 넓어 '물멍' 하기 좋다.

### Travel Info

- 화양구곡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205
- 쌍곡구곡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699 쌍곡휴게소(주차)



# — 신킨들과 그의 유대인들



1939년 9월 나치군의 폴란드 침략으로 촉발된 2차 세계대전은 유럽 대륙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6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패망한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연합국의 참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오늘날 영국인들은 덩케르크(Dunkirk) 후퇴작전을, 러시아인들은 스탈린그라드의 사수 작전을 가장 엄혹했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나치 정권이 저지른 최대 최고의 만행이라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일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직접 방문했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Auschwitz)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안경과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놀란 장군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짐작했을 것이다. 필자가 1964년 여름 휴가를 이용해 다하우 수용소(Dachau Concentration Camp)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란 것은 고기 굽는 석쇠 모양의 철판이었다. 안내판을 읽으니 가스실에서 질식사한 유대인 시체를 석쇠에서 구운 다음 압축해 시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비누, 초 등을 만들었고 찌꺼기는 비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불에 구운 시신에서 더 많은 기름을 뽑을 수 있었다는 안내문을 보며 나치의 만행에 아연실색할 뿐이었다. 나치의 만행 이면에는 몇몇 독일 시민들의 미담도 전해지고 있다. 안네의 일기에서 소녀 가족을 숨겨준 주부의 선행과 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살린 신킨들의 의인상을 목격할 수 있다.

오스카 신킨러(Oskar Schindler)는 1908년 체코의 츠비타우(Zwittau)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때에 츠비타우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였으나 1차 세계대전으로 츠비타우는 체코의 영토가 되었다. 신킨러 일

가는 16세기에 빈에 입주했기에 독일인으로 행세했다. 쉰들러는 김나지움에 입학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고 1927년에 독일군에 입대해 18개월간 복무했다. 그는 부유한 농장 경영인의 딸과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갖게 되었다. 쉰들러는 1935년 독일 첩보부와 접촉해 체코의 철도망에 관한 정보를 독일에 제공한 간첩 혐의로 체코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반역죄로 기소되고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38년 체결된 뮌헨협정에 따라 체코 영토인 수데텐란트(Sudetenland)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사형을 면했다. 나치의 위세가 나날이 커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그는 1939년 나치당에 입당했고 민첩한 그는 나치 친위대의 간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이때부터 사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쉰들러는 유대계 폴란드인 사업가의 도움으로 크게 발전하는 한편 나치에 탄압받던 폴란드인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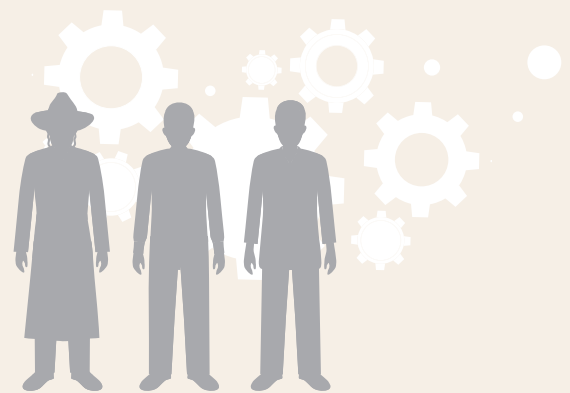
1939년 쉰들러는 DEF(Deutsche Emailwaren Fabrik)라는 에나멜 공장을 설립해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다. DEF 공장은 주로 군인들이 야전에서 사용하는 식기와 물통, 각종 총기에 사용되는 화약 등 군수품을 생산했는데 전쟁이 확대되면서 군수품 수요가 폭증된 결과 공장 규모도 증가해 1944년에는 1,75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고 그중에는 유대인도 1,000여 명 포함되어 있었다. 쉰들러는 나치당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나치 친위대로부터 유대인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 여성, 대학생을 숙련공이라 속이고 자신의 공장에 데려와 은밀히 보호했다. 그는 암시장을 통해 물자를 조달받는 밀수로 나치에 발각되거나 유대인 여성과의 은밀한 교제를 엄격한 뉘른베르크 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치에 체포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때마다 능숙한 변명과 교활한 수단 특히 돈이나 보석, 예술품 등의 뇌물로 풀려나왔다. 그는 뇌물을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액수는 엄청난 양이었다. 종전이 임박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하라는 나치의 계획이 세워지자 쉰들러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1,200여 명의 유대인을 숙련된 노동자라면서 자신의 공장에 취업시켜 그들 목숨을 살리기도 했다.

종전 후 쉰들러는 사업에 실패해 삶이 어려워지자 1949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아 그는 1958년 독일로 돌아왔다. 말년을 독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으로 잠시 그곳에 거주하기도 했다. 1962년 쉰들러의 이름을 딴 나무가 이스라엘 야드바셈 거리에 세워졌고 1993년 이스라엘은

쉰들러 부부에게 「세계의 의인」이란 칭호를 수여했다. 1974년 사망한 쉰들러의 시신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묘지는 유대인의 성지인 시온 산인데, 나치당원이었던 그가 유일하게 시온 산에 묻힌 것이다. 쉰들러는 세계 곳곳에 사는 유대인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이며 지금도 그를 추모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종전의 혼란과 1974년 쉰들러의 사망으로 「쉰들러 리스트」는 유실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독일 힐데스하임의 한 가정집 다락에서 1999년 발견되었다.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1,200여 명의 유대인 생존자 명단을 비롯해 생존자들이 쉰들러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 쉰들러의 연설문 등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들은 쉰들러가 사망할 때까지 살던 힐데스하임에서 그가 친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친구도 1984년 사망하자 자녀들이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다. 발견된 문서는 이스라엘 야드바셈 기념관에 전달되었다. 쉰들러가 구해준 유대인들은 전후에도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쉰들러의 유대인들」(Schindlerjuden)이라고 부른다.

한편 쉰들러에 대한 비판적 평론도 있다. 역사학자 크로(David M. Crowe)는 『오스카 쉰들러: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인생, 전쟁 기간 중의 활동과 리스트의 전모』(Oskar Schindler: The untold account of his life, war-time activities, and the true story behind the list)라는 저서를 2004년 출간했다. 크로는 이 저서에서 쉰들러는 노임이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치 간부들을 뇌물로 사주해 유대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것이었으며, 원래는 유대인을 구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글로벌 OTT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영우가 보여준 ‘콘텐츠 파워’

참 오랜만이였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저녁 시간 TV 앞에 모여 깔깔거리고 또 눈시울을 붉혔다. 최근 중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얘기다.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난무하는 폭력과 막장 드라마에 질려 어느새 TV를 외면했는데, 다시금 가족 시청자를 TV로 불러 모았다.



사진 출처 ENA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라는 우리 사회 소외층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부터 신선했다.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소재였지만 박은빈 등 연기자의 열연과 탄탄한 스토리, 정교한 연출기법이 결합해 웰메이드 명작 드라마로 승화시켰다. “수많은 한국드라마를 봤지만 내 인생드라마는 이제 ‘어토니(Attorney, 변호사) 우’이다.” “에미상을 받아야 함당하다.”는 해외 시청자들의 극찬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순위 1위로 <오징어 게임> 이후 잠잠했던 K콘텐츠의 열기를 되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우영우는 한국 드라마만의 독창적 문법으로, 주인공의 미묘한 내면적 심리와 장면의 특수성을 잡아내는 섬세한 카메라 워크를 선보인 게 인상적이었다. 천문학적 제작비의 컴퓨터그래픽(CG)으로 도배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는 결코 찾기 어려운, K드라마만의 차별화된 역량이다.

우영우는 단순한 콘텐츠의 흥행코드를 넘어 방송 생태계에도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바로 ‘킬러 콘텐츠의 힘’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콘텐츠 소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지상파나 종편마저 대부분 한 자릿수 시청률에 머무는 지금, 인지도

조차 미미한 케이블 채널 ENA는 우영우로 15%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불과 석 달 전 스카이TV가 미디어 지니와 손잡고 재출범한 신생채널이다. IPTV마다 다르지만 20번대에서 멀게는 70번대에 배치돼 있는데, 의도치 않고서야 리모콘을 누를 이유가 없는 속칭 '듣보잡' 채널이다. 우영우 역시 첫 방송 시청률이 1%에도 못미쳤다. 그러다 넷플릭스에 소개된 뒤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자들이 ENA '본방사수'에 나섰다 시청률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콘텐츠만 뛰어나다면, 시청자들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진리를 확인시킨 셈이다. 드라마는 세칭 채널빨(방송국)이라는 방송가의 공식도 무너졌다. 우영우 방영 이전 계획됐다고 하지만 KT올레TV가 기존 29번이던 ENA를 1번으로 전진 배치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영우 역시 한 지상파 방송과 편성을 논의하다 불발됐다. 지상파 방송으로선 앞선 <오징어 게임>에 이은 연타석 헛발질이다. 폭력성이 낮은 가족 드라마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클 것이다. 장애라는 소재의 특수성이나 저작권 문제, 출연자 선정과 제작비, 제작방식 등 여러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다. KT는 이 틈을 과감히 비집고 들어가 행운을 거머쥐었다.

분명한 점은 더 이상 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 편성에서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이 불발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시청자들의 반응마저 굴욕적이다. 당장 간접광고(PPL) 관행 속에 우영우의 김밥집은 온전했을까, 조연급이던 박은빈이 주연을 맡을 수 있었을까, 대본은 애초 그대로 유지됐을까.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에 던지는 의문들이다.

눈여겨볼 점은 또 있다.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우영우의 지식재산권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ENA 대신 직접 소유하기로 했다.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 등 넷플릭스 투자를 받은 제작사들이 제작비 외에 추가 수익을 분배 받지 못한 것과 대조된다. 후속작의 몸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즌제나 IP 확장을 통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좋은 콘텐츠와 제작역량만 담보된다면 얼마든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우영우 이후 에이스토리와 ENA가 계속 승승장구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우영우 신드롬은 글로벌 OTT의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 군소 OTT, 채널사업자들의 생존해법은 결국 콘텐츠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 취향도 공유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태그니티’

태그니티는 단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창조와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리크리에이터의 장이자 커뮤니티 안에서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경험할 수 있는 취향공동체다.

**같이 놀아볼까?  
취향공동체라는  
커뮤니티 문화**



**소비자 주도의 커머스  
새로운 아이덴티티  
창조의 장**



얼마 전 소위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로 불리는 한 지인을 만났다. 그는 카메라와 같은 IT 제품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것은 물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직접 운영하며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이런 그는 SNS를 활용해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가령 자신이 구매한 트렌디한 제품을 언박싱(Unboxing)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가 올린 영상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꽤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는 모습에서는 국경과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때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의견들이 오가기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파편화가 심화 중인 나노사회 시대에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개인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문화를 '태그니티(Tagnity)'라 한다. 태그니티는 해시태그의 '태그(TAG)'와 공동체를 의미하는 '커뮤니티(Community)'가 합쳐진 용어로 '취향공동체'로 불리기도 한다.

# Tagnity

소비자들이 태그니티에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콘텐츠를 재생산 및 확대하기도 하면서 태그니티는 새로운 '커머스(Commerce)'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태그니티는 MZ세대가 중추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MZ세대가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 취향을 공유하는 데 진심인 성향 때문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맛집을 찾을 때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밖에 SNS나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한 구독과 팔로우에 익숙한 MZ세대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에 능숙한데, 이 또한 태그니티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콘텐츠 업계와 유통업계는 '팬덤(Fandom)'을 모을 수 있는 태그니티 만들기애 주력 중으로, 트렌드에 맞춘 특정 해시태그를 내걸고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카오, 유튜브, 중고거래 어플 당근, 인테리어 어플 오늘의 집 등 다양한 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태그니티 문화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선보이는가 하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프리챌 운동화 동호회를 기반으로 시작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무신사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무신사의 대표 콘텐츠인 '스냅' 또한 패션피플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 기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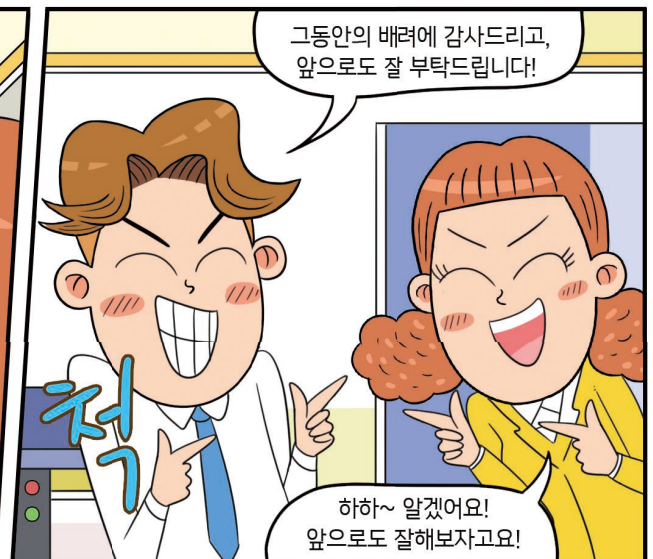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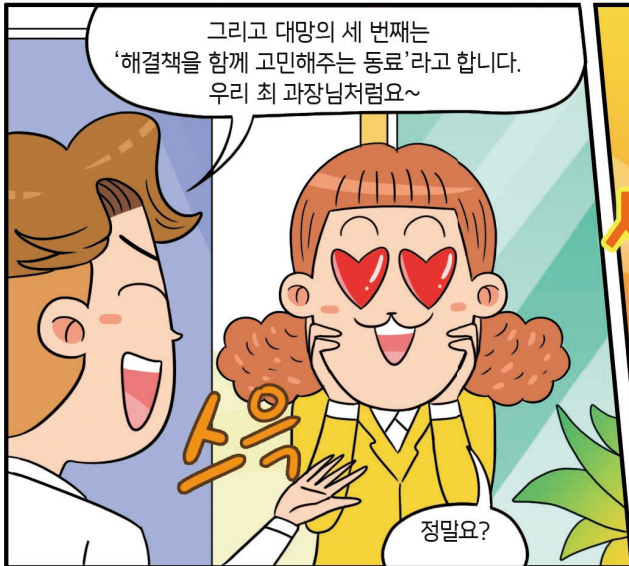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히 성장 중이다. 넷플릭스 기반의 문화예술 커뮤니티인 '넷플런가'가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시청 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모임이다.



# Together,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어주세요

## MZ부터 베이비붐 세대까지 함께 보면 좋은 직장인 공감 스토리







## 청렴문화행사「함께그린 청렴 Hi:story」개최

우리 회사는 9월 15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함께그린 청렴 Hi:story」 청렴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그린 청렴 Hi:story」는 히스토리(HISTORY)와 하이, 스토리(Hi, Story)의 합성어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역사를 함께 그려온 임직원 모두가 청렴스토리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청렴투표 △청렴퀴즈 △청렴네컷 △청렴 전시회 △특강 및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청렴문화행사는 'YES 7, NO 7(바람직한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기준 7가지씩)' 선정을 위한 청렴투표 및 퀴즈, 재즈공연과 함께 역사 속 청렴 인물을 주제로 한 청렴토크 등 직원들이 참여하여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경영진 합동 안전점검 실시

우리 회사는 9월 1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분기마다 진행되는 전사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사장, 생산안전본부장, 안전경영실장 등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제3공장 건설현장 및 핵연료2동 ECO동 공정진행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 송강마을 마켓축제 후원

우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성구청,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업하여 송강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최하는 '송강마을 마켓축제'에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문화공간, 지역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9월 22일 목요일 1일간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프리마켓, 지역 전문 뮤지션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나눔 동참

우리 회사는 8월 25일 대전시 덕진동 본사 및 관평동 TSA플랜트에서 'KNF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하절기 방학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수급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진행되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약 350여 명의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별로 지정된 시간대에 헌혈 버스 6대에 탑승해 헌혈을 진행하였다.



### 추석 명절맞이 노사합동 이웃사랑 나눔

우리 회사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일 노사 합동으로 회사 인근에 소재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네 곳을 찾아 과일 및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품은 송강전통시장 및 관평동 소재의 자매마을 농가에서 구입한 과일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각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매해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은 물론, 자매마을 후원, 복지시설 안전점검 재능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수해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활동

우리 회사 정창진 경영관리본부장과 에너지피아 봉사단원 20여 명이 8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막음센터를 찾아 운동장 및 정문에 적치된 수해 쓰레기 및 토사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용 모래주머니를 제작하여 적재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페인트 도색을 진행하였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에너지피아 봉사단을 중심으로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전화 봉사, 김장 나눔, 과수농가 지원, 주변 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안전 및 마케팅 교육 참여

우리 회사는 사회적경제연구원 주관으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안전 및 마케팅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 사회적경제기업 조함원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의식 고취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되었는데, 퍼블리코 대전(대전 소재 7개 공공기관 공동 사회 공헌 협의체), 사회적경제연구원, 동부소방서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각 참여기관은 고유의 업(業) 특성을 활용하여 마케팅 교육, 가스안전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소방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회사는 방사선관리부의 협조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장애인 보호자 숲케어' 프로그램 참여

우리 회사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국립대전순채원(대전 유성구)에서 진행된 '장애인 보호자 숲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 지원 필요'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전원자력연료와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전관광공사, 국립대전순채원, 그리고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 청소년 대상 '청림씨앗 프로그램' 실시

우리 회사는 9월 14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강경상업고등학교(교장 박영해) 경찰사무행정과 학생을 대상으로 청림씨앗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청림씨앗 프로그램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청림 전문강사 초청 강연, 청림 사적지 탐방 등의 청림 스토리텔링과 청림도서 등으로 구성된 청림 꾸러미를 제공하여 청림 인식 향상 및 청림문화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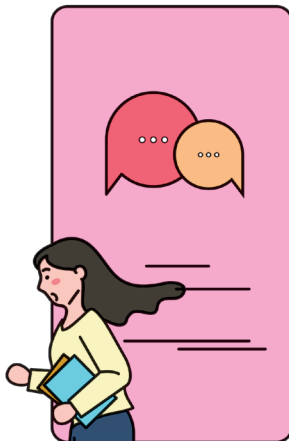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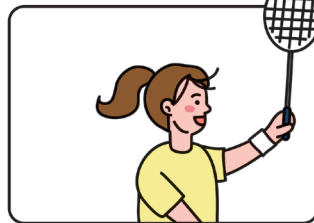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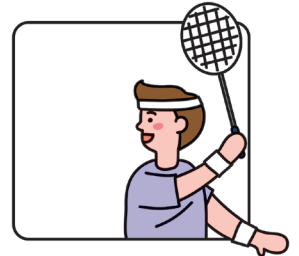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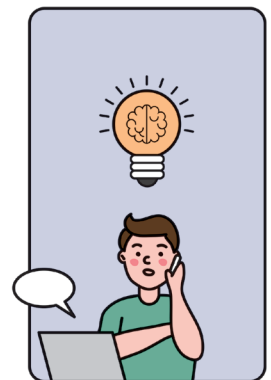
보호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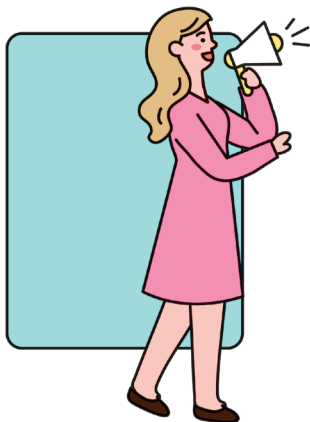
걱정말고!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신고하고!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_부패공익신고  
(www.knfc.co.kr)

**방문·우편 신고**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실

**상담**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실  
☎ 042.868.1113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전원자력연료의 소식지 <원자력연료> 직원 참여 코너에 함께해 주세요!



한전원자력연료의 소식지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 형성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한전원자력연료의 비전을 전달하고 직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참여 직원에게는 푸짐한 혜택이 제공되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대상**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누구나  
**참여 콘텐츠**



## Theme & Talk

인터뷰

매 호 메인 테마를 주제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일상공감

직원 기고

우리 회사 직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 이야기를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자유 주제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함께의 가치

체험 및 인터뷰

동료, 가족, 지인(친구, 연인 등) 등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코너. 공방 체험, 베이킹 등 일일 클래스부터 활동적인 체험이 준비돼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막걸리 만들기, 죽마고우와 사격장 체험 등

**참여 방법** 방법 1 메일(shna@knfc.co.kr)로 참여를 원하는 콘텐츠 이름과 인적사항(소속, 이름, 전화번호)을 발송

방법 2 QR코드 스캔 후 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콘텐츠 선택 및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



<원자력연료> 참여하기

## 스마트폰으로 <원자력연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식지 <원자력연료>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앱을 내려받거나 웹진 페이지에 접속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드로이드



iOS



웹진

# 재미있는 한마디

‘재미있는 한마디’와 ‘독자의 시선’에 참여하신 분들 중 재치 넘치는 답변과 다양한 의견을 추천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엽서 또는 QR코드로 참여해 주세요. 다음 호 <원자력연료> 소식지에 실릴 예정입니다.

## 주제

우연한 기회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우정 여행을 떠나게 된 당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당신이 존경하는 선배를 험담하는 동료에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 참여 방법

주제에 맞는 유쾌하고 재치있는 메시지를 작성해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인적사항 및 정답 기재



## 독자의 시선

<원자력연료> 독자가 보내준 소중한 의견입니다.



### 박순화(강원도 동해시)

‘Theme&Test’의 번아웃증후군 내용을 몇 번씩 되풀이하여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불안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 양서희(전북 장수군)

‘철용성’ 과학칼럼이 인상 깊었습니다. 원자력 연료 표지에 나온 “Do it-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바로 철용성 같아요.



### 유서인 (전남 여수시)

‘지구 환경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 템 5가지’는 특히 원하던 정보였네요. 조금 신경 쓰고 불편하게 산다고 문제가 될 것 있나요? 삶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테니까요.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